

# 사하라시아

| 제임스 드메오 | 김누리 옮김 |

사하라 주변의 인류학, 기후학, 지리학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빌헬름 라이히의 심리적 통찰을 적용해 지역의 사막화와 인류 폭력성의 발현을 진단합니다(편집자 주).



## 개요

1,170개에 달하는 생존수준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 세계에 걸친 부성주의적<sup>1</sup> 행태와 사회제도의 분포가 특정한 지리학적 패턴을 띠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 부성주의적 행태와 사회제도는 모자(母子)간, 남녀(男女)간의 결속을 방해하는 특징을 보이며 억압, 고통, 트라우마, 갑옷 입기<sup>2</sup> 등으로 묘사될 수 있다. 이 행태와 제도의 분포 패턴을 관찰하여 보면, 내가 사하라시아(saharasia)라고 이름붙인 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사막지대에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극도의 부성주의적 행태가 발달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하라시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오세아니아와 신대륙(아메리카 대륙) 지역에서는 매우 부드럽고 갑옷을 두르지 않은 모성주의적 행태가 목격된다. 부성주의와는 반대로 모성주의는 모자간, 남녀간의 결속을 보호하고 복돋는 특징을 보여준다. 고고학적, 역사학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부성주의는 기원전 4000년경 사하라시아 지역이 사막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시아에 위치한 부성주의의 발원지에서부터 그 주변부로의 확산을 설명하기 위해, 나는 부성주의자 부족들의 이민과 정착의 패턴을 추적하였다. 사하라시아가 사막화되기 이전에는 이 지역 어디에서나 모성주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고 부성주의의 흔적은

---

1 patrist. 부성주의(父性主義, patrism) ↔ 모성주의(母性主義, matrism)

2 armored. 본래 부드러운(soft) 인간의 본성이 트라우마를 입으면서 점차로 갑옷(armor)을 입듯이 딱딱해진다는 빌헬름 라이히의 성격분석 개념 중의 하나이며, 심리적인 갑옷입기는 동일하게 신체적인 갑옷입기로, 즉 신체 일부분이 굳어버림으로써 나타나게 된다는 심신상관론적인 관점이 특징이다.

거의 전무했다. 그리하여 나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모성주의는 인류에게 근본적으로 내재된 행동양식이자 사회제도이며, 부성주의는 사회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트라우마를 일으킴으로써 영속하는 것으로, 그 기원은 사하라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극심한 사막화와 기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주를 감행해야 했던 당시의 환경에 있다. 빌헬름 라이히의 심리학적 통찰은 최초의 트라우마가 사라진 이후에도 부성주의적 행태(갑옷 입기, 폭력 등)가 어떻게 사회 내에서 정착되고 지속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했다.

## 도입

이 논문은 나의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과 사회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인간 행동양식에 대한 7년간의 지리학적 연구의 결과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 나는, 트라우마적이며 억압적인 행동양식과 폭력과 전쟁을 유발하는 사회풍습과 제도의 복합적 구조에 초점을 두었다. 거친 자연환경이 한 사회제도와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유아와 청소년의 생물학적 욕구를 억압하고 파괴하게 만드는 양상과 이로 인한 행동양식의 변화에 대해 임상의학적이고 비교문화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입한 인간 행태의 기원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은 기존의 어떠한 연구들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고대 문화의 역사에 대하여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재구성을 가능케 했다. 나의 접근법을 통하여 트라우마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제도와 파괴적인 공격성, 전쟁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증할 수 있었으며 또한 전쟁, 남성우위, 파괴적 공격성 없이 평화로웠던 고대 사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지구상에서 인류 문명이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이타적이었던

상태에서 폭력적이고 호전적이며 전제적인 상태로 변모하기 시작한 최초의 시점과 그 장소를 지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발견에는 이전까지 밝혀지지 못했던 사회적, 환경적 상태를 밝혀낸 고기후학, 고고학적 현장연구와 전 세계의 수백, 수천가지의 문화에 대하여 방대하게 축적된 인류학적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다. 근래의 발명품인 컴퓨터는 이러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고, 다른 방법으로는 평생이 걸렸을 나의 세계행태지도의 완성을 단 수년 안에 가능케 하였다. 갖가지 의문들에 대한 나의 접근법 또한 인간 행동양식과 사회제도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개관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의 발견의 핵심을 도해로 보여주는 세계행태지도를 선보이기에 앞서, 이 지도가 내포하고 있는 나의 이론과 그 주요 변수에 대해 먼저 논하고자 한다.

### **부성주의 문화 對 모성주의 문화 :**

#### **유년기 트라우마와 성억압 폭력의 근원**

최초에 나의 연구는 초기 유년기 트라우마와 성억압에 관련된 사회적 요소를 지리학적으로 분석하는, 빌헬름 라이히의 성경제(sex-economy) 이론에 대한 실험으로 시작되었다. 정신분석학에서 시작되어 분화된 라이히의 이론은 호모 사피엔스의 파괴적 공격성과 가학적 폭력성이 트라우마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억제, 감정표현의 억제, 쾌락지향적 충동의 억제로 인하여 발생된, 전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억제는 고통스러우며 쾌락을 제한하는 제의(ritual)와 모자간, 남녀간 결속을 방해하는 사회제도에 의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개인에게 만성화된다. 이러한 제의와

제도는 생존수준의 ‘원시’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발달한 ‘문명’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며 그 예는 무척 다양하다. 유아에게 행해지는 무의식적 혹은 합리화된 가학행위에는 신생아를 어머니에게서 소외시킨다든지, 울고 있는 아기에 대한 무관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강보 두르기, 모유수유의 중단 혹은 너무 이른 젖떼기, 신체(보통 성기)에 상처 입히기, 트라우마적인 배변 훈련, 각종 체벌과 위협으로 강요된 조용히 하기, 호기심 갖지 않기, 순종하기 등등이 있다. 그 외에 모든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싹트는 성에 대한 관심을 억제하고 말살하는 (처녀성 터부를 비롯한) 사회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의적 체벌과 억압은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기는 하나, 특히 여성에게 더욱 고통스럽게 이루어진다. 고통의 인내, 감정의 절제, 삶의 여러 가지 결정에 있어 연장자(보통 남성)에 대한 무비판적 복종 등은 한 사회제도가 성인의 행동양식에까지 지배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결과적으로 고통과 쾌락의 감소로 삶을 위협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억압적 제도는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선량’해지는 ‘인격형성’ 과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개인들에 의해서 다시 강화되고 지속된다. 이러한 고통과 억압으로 이루어진 사회제도의 복합체에서 신경증적, 정신병적, 자기파괴적, 가학적인 행태가 발현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라이히의 성격제학적 관점에 따르면, 성장기의 인간이 겪게 되는 트라우마의 유형과 고통의 강도에 따라 성격과 근육의 갑옷입기가 발생한다. 정상일 때는 완전한 호흡과 감정표현, 그리고 오르가즘을 통한 성적 방출이 이루어지는 생물리적(biophysical) 과정이 크건 작건 간에 만성적인 방해로 받게 된다. 방출되지 못한 감정적, 성적(생체에너지) 긴장은 억눌린 채 축적되고, 이러한 내부적 긴장의

계속되는 축적은 해당 유기체를 무의식적으로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며 자기파괴적이고 가학적인 태도로 행동하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은 ‘문화’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근원적인 생물학적 욕구와 충동을 비합리적으로 왜곡시키고 변형시킬 때 일어난다. 모유수유의 거부, 아이의 배변이나 성적 표현에 대한 체벌, 늙은 남성에게 소녀를 강제로 혼인시키는 전통(‘유아 약혼’, ‘신부값’) 등이 그러한 예이다.

고통을 일으키고 쾌락을 차단하는 제의와 사회제도는 과거에도 지금에도 대다수의 문화에 만연하지만 그 예외도 있다. 소수에 불과하지만 몇몇 문화에서는 유아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청소년과 성인의 성적 관심을 억압하지 않는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안정적인 단혼제 가족 결속을 유지하면서 친절하고 호의적인 사회관계를 맺고 있는 비폭력적인 사회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말리노프스키는 유년기의 성적 잠복기와 오이디푸스기의 갈등이 생물학적 근원을 갖고 있으며 모든 문화에 보편적인 것이라는 프로이트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이러한 문화의 존재를 지적했다. 라이히는 성적 억압이 정신병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자신의 임상적, 사회적 발견이 사실임을 트로브리안(Trobriand) 사회의 현실이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문화에 대한 민족학적 기록도 있다. 전세계에 걸친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유아에게 트라우마와 고통을 가하고 청소년에게서 감정 표현의 자유와 성적 호기심을 억압하는 사회는 신경증적이고 자기파괴적이며 폭력적인 각종 행태를 드러낸다. 이에 반하여 유아와 어린이들을 깊은 신체적 관심과 부드러움으로 대하며 감정 표현과 성적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회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비폭력적이다. 연구를 통하여 폭력적으로 뒤튼린 사회에서 어린

구성원들에게 트라우마를 가하지 않고 성적으로 억압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별개의 접근법으로도 위에서 논한 유년기의 트라우마와 성억압, 그리고 남성우위와 가정폭력 사이의 연관성을 독자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세계사 문헌에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호전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전제적인 중앙집권국가에 대해 분석해보라. 유사한 사료를 통해 테일러는 갖가지 사회에서의 인간 행동양식에 대한 이분법적 도식을 만들었다. 테일러의 용어를 빌어 그의 도식을 성경제학적 발견에 맞추어 확장시켜 보면, 이러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는 부성주의적(patrist)이라고 불리우며, 기분 좋은 모자간, 남녀간 결속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 모성주의(matrist) 사회와는 거의 모든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1>은 부성주의(갑옷 입은) 문화와 모성주의(갑옷 없는) 문화의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준다.

동물 세계에서는 비슷한 예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성주의의 많은 양상들이 자연스러운 유아의 생물학적 현상을 방해하며 일부는 유아와 어머니의 사망률과 질병발생률을 명백히 증대시킨다. <표 1>에서 제시된 고통스럽고 불쾌한 제의들이 전부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부성주의 사회에서는 유아와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살의의 방출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장치(유아, 과부, 마녀, 창부 살해제의 등등)와 그에 수반되는 가장 공격적이고 잔혹하며 가학적인 남성에 대한 신격화(전체주의, 신왕주의(divine kingship)가 있어왔다. 현대의 일부 문화에서도 이런 모습을 극단적인 형태 혹은 잔재로 남은 형태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한 문화의 지리적인 위치가 갖는 함의도 분명하다.

<표 1> 행동과 태도, 그리고 사회제도의 이분법

구분	부성주의(갑옷 입은)	모성주의(갑옷 없는)
유아,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대하지 않음</li> <li>• 미약한 신체적 애착</li> <li>• 트라우마를 입는 유아</li> <li>• 고통스러운 입문식(initiation)</li> <li>• 가족에 의한 지배</li> <li>• 성별에 따라 분리된 거주지, 군대, 또래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대함</li> <li>• 강한 신체적 애착</li> <li>• 트라우마 없는 유아</li> <li>• 고통 없는 입문식</li> <li>• 어린이 민주주의</li> <li>• 혼성 거주</li> </ul>
섹슈얼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적 태도</li> <li>• 성기 손상</li> <li>• 처녀성 터부</li> <li>• 청소년 성애에 대한 엄격한 제한</li> <li>• 동성애 경향 + 그에 대한 극렬한 터부</li> <li>• 근친상간 경향 + 그에 대한 극렬한 터부</li> <li>• 축첩, 매춘이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적 태도</li> <li>• 성기 손상 없음</li> <li>• 처녀성 터부 없음</li> <li>• 청소년 성애의 자유로운 허용</li> <li>• 동성애 경향 없거나 강한 터부</li> <li>• 근친상간 경향 없거나 강한 터부</li> <li>• 축첩, 매춘 없음</li> </ul>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의 제한</li> <li>• 열등한 지위</li> <li>• 음부혈 터부(처녀혈, 생리혈, 출산혈)</li> <li>• 자신의 짝을 스스로 정할 수 없음</li> <li>• 뜻대로 이혼할 수 없음</li> <li>• 남성이 산아를 조절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다 자유로움</li> <li>• 동등한 지위</li> <li>• 음부혈 터부 없음</li> <li>• 자신의 짝을 스스로 정함</li> <li>• 뜻대로 이혼 가능</li> <li>• 스스로 산아 조절</li> </ul>
문화/가족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위주의적</li> <li>• 위계적</li> <li>• 부계주의</li> <li>• 부부가 남편의 가족과 동거</li> <li>• 강제적인 평생단혼제</li> <li>• 종종 일부다처제</li> <li>• 군인계급의 존재</li> <li>• 폭력적, 가학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주의적</li> <li>• 평등주의적</li> <li>• 모계주의</li> <li>• 부부가 아내의 가족과 동거</li> <li>• 비강제적 단혼제</li> <li>• 일부다처제 드물</li> <li>• 전임(full-time) 군인계급 없음</li> <li>• 비폭력적</li> </ul>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욕주의, 쾌락의 회피</li> <li>• 자연에 대한 금지, 공포</li> <li>• 전임 종교인 존재</li> <li>• 남성 샤먼</li> <li>• 엄격한 행동 규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쾌락에 호의적이며 제도화됨</li> <li>• 천연성, 자연 숭배</li> <li>• 전임 종교인 없음</li> <li>• 남성, 여성 샤먼</li> <li>• 엄격한 규율이 없음</li> </ul>

이미 임상의학에서나 비교문화학, 역사학에서 충분한 입증 사 를 확보하고 있는, 성인의 폭력은 유년기의 트라우마와 성억압에 근거한 것이며 모자간, 남녀간 결속이 모성주의적 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양성되는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연 이러한 트라우마와 억압, 폭력은 최초에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유아와 여성에게 가공할만한 폭력을



가하며,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사회제도를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부성주의는 분명 인류의 태가 아닌, 특정 시기와 특정 장소에서 발생했을 것이다. 부성주의가 생물학적 욕구에 대한 만성적인 억압, 방해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는 부성주의적 성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떠한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생물학적 충동에서 발견되는 (그러므로 인간에게 본성적인) 모성주의는 태초의 모든 인간 사회에서 공통적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모성주의가 여성과 유아에 대한 가학적인 욕망을 부추기지 않으며 모태와 영아 간의 결속을 방해하지도 않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분명한 생존의 이점을 가져다준다는 사실로 짐작컨대 자연선택론적으로도 모성주의가 선호되었을 것이다.

전 세계에 걸친 인류학적, 고고학적 자료에 대한 지리적 분석을 통하여 위의 가정과 추론을 입증할 수 있음을 밝히고, 각기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수집한 자료들과 연구들을 공간적 측면에서 조망하는 것이 내 연구의 중점이었다. 그 일례로서, 특정 양상의 모성주의와 평화로운 사회의 흔적이 어느 지역의 고고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지층에서 발굴되었으며 그 이후 그 사회가 보다 폭력적이고 남성우위적으로 변이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연구자들이 이러한 발견에 대해 무지했든 혹은 일부러 무시하였든 간에, 초기의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평등했던 사회가 폭력적이고 남성우위적인 호전적 사회로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연구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발견의 지리적 측면은 그야말로 분명하다.

이러한 증거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이러한 고고학적 전이에는 분명한 전 지구적 추세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한 지역 전체가 모성주의에서 부성주의 사회로 전이된 경우도 있었고,

수세기에 걸쳐서 그러한 전이가 한 대륙을 천천히 휩쓴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발견은, 이러한 문화적 전이가 구대륙의 특정 지역(특히 기원전 4000~3500년경의 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기적으로 해당 지역이 어느 정도 습했던 기후에서 건조한 기후로 대규모 전환을 겪었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의 문화적 전이는 보통 새로 생겨난 사막지대의 외곽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주민들이 건조해진 지역에서 이탈하여 보다 습기가 많은 변경 지역으로 침입하였던 사실과 연관이 있다. 극심한 가뭄과 사막화로 인한 트라우마가 모자간, 남녀간 결속을 왜곡시켰다는 몇몇 단서가 있음을 상기하여 볼 때,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가뭄, 사막화, 기아가 일으키는 사회적 황폐화

또 다른 일련의 단서들은 생존수준의 문화에서 반복된 극심한 기근과 사막화로 인한 대규모 이주가 초기 모성주의적 사회를 부성주의로 전이시킨 중대한 요인이 되었음이 틀림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다음의 예를 보라.

- ① 한 문화가 기근과 기아에 시달리면서 겪게 되는 변화에 관한 근래의 목격담은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가족적 결속의 붕괴를 그리고 있다. 동아프리카의 이크(Ik) 부족에 대한 톰블의 슬픈 기록은 이러한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비슷한 관찰 기록들이 많이 존재한다. 극심한 기근 상황에서는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남편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떠나는 일이

찾다. 그들은 돌아오기도 하고 돌아오지 않기도 한다. 굶주리는 아이들과 늙은 가족구성원들은 결국 버려지게 되고 제 살 길을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면 죽게 되는 처지에 놓인다.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음식을 훔치면서 방랑하기도 하며 결국 남아있는 사회적인 결속조차도 완전히 무 지게 된다. 모자간의 결속은 최후까지 지속되는 편이나 마침내 굶주린 어머니들도 자신의 아이를 저버리게 된다.

- ② 심각한 단백질과 열량의 부족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적 연구는 기아야말로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아소모증(marasmus)이나 단백질결핍성소아영양실조증(kwashiorkor)에 시달리는 유아는 심리적인 접촉 불능과 행동마비의 징후를 보이며, 심각한 경우 두뇌와 신체의 발육이 정지하기도 한다. 기아가 어느 정도 이상 지속이 되면 이후에 식량의 공급이 원활해져도 다시 완전한 상태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며 신체적, 감정적인 장애도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감정적 활력과 성적 에너지의 전반적인 감소가 보고 되었으며 일부는 식량공급이 회복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아는 모체와 격리되었을 때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기아와 기근에 반응한다는 사실이다. 두 경우 모두 평생 동안 배우자와 자식에 대해 감정적인 결속을 만드는 능력에 뚜렷한 장애가 생기는 것이 관측되었다.
- ③ 사막지대나 건조지대에서의 험난한 생활이 만들어낸,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생활양식 몇 가지가 더 밝혀졌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주가 잦은 중앙아시아의 부족들이 사용하는 머리와 몸을 죄는 강보가 있다. 이는 의도하지 않게 두개골의 변형과 몸을



그림 1. 정상 유아 對 소모증 유아

(좌) 생후 5개월의 건강한 아기. (우) 생후 7개월 소모증에 걸린 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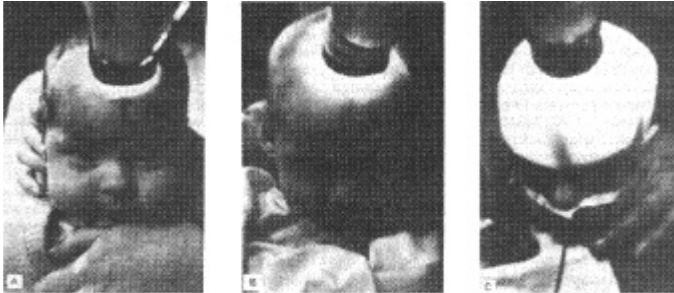


그림 2. 정상(좌), 영양실조(가운데), 기아-소모증(우)

아기의 투조(transillumination) 사진

투조 시에는 두개골과 뇌 사이에 액체로 채워진 공간이 빛나게 된다. 건강하게 자란 유아는 뇌가 잘 발달하여 뇌와 두개골 사이의 공간이 작지만 영양실조나 기아에 시달리는 유아는 그렇지 않다.

옥죐으로써 두 가지의 트라우마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으로 실시되던 유아의 두개골 변형 풍습은 시대가 지나면서 사라졌으나 여전히 강보로 유아의 몸을 옥죄는 행위는 몇몇 지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통의 경우, 몸이 고통스럽게 옥죄여진 유아는 보호자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크게 울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극심한 가뭄을 피해 장기간 지속되는 이주에 지친 유아는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 추측된다. 극심한 기근과 기아 속에서는 보호자들도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유아를 달랠 만큼의 관심은 아마도 갖지 못하리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사막화가 계속되면서 잦은 이주는 이들 부족에게 있어 거의 평생에 걸친 삶의 양식이 되어버렸다. 이 지역의 고고학적 기록은 이곳에서 두개골 변형과 강보 싸기과 육아의 한 전통으로 제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이 고통스러운 제도는 이 지역의 부족들이 유목생활을 청산하고 정착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특징적인 사회제도로써 존속되었다. 포경수술이나 음부폐쇄술(infibulation)을 비롯한 주요 사회제도가 구대륙의 사막지대에서 발생하여 지속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원인은 불분명하다.

강보 싸기와 인위적인 두개골 변형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목민들에 의해 처음 발생하였고 이 둘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의 두개골 변형은 현재는 사라졌으나 강보 싸기는 이 유목민들이 영향을 끼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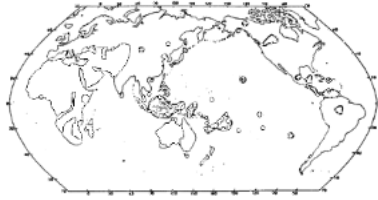
그림 3. 데보라 캐리노가 그린 강보에 싸여진 아기



그림 4. 변형된 두개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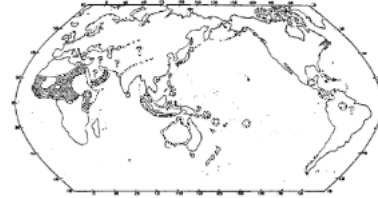
### 남성 성기 손상

- 극단적 형태: 가죽벗기기, 포경수술, 요도절개술
- 보다 완화된 형태: 일부 절개



### 여성 성기 손상

- 극단적 형태: 음부폐쇄술
- 덜 극단적 형태: 음핵절제술, 음순절제술
- 존재하나 불분명한 형태



### 유아 두개골 변형과 강보 싸기

- 현존: 화살표는 확산 패턴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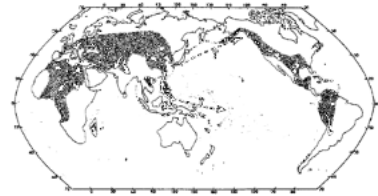


그림 5.

주기: 위의 지도에 반영된 자료는 생존수준 사회의 원주민들에 대한 자료에 기반하였으며 아메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의 경우, 유럽의 이민자들이 도착하기 이전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위의 추론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게는 생존수준 사회의 모성주의적인 최초 사회결속이 지속적이고 극심한 기근과 사막화를 거치면서 처음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극건조기후와 기근, 기아,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강제된 이주가 세대를 거치면서 모자간, 남녀간 결속을 와해시켰고 그리하여 부성주의적 태도와 행동, 그리고 사회제도가 구축되고 점차로 강화되면서 옛 모성주의 사회제도를 대체하였을 것이다. 극건조기후나 사막기후가 주변 경관에 고착되듯, 부성주의도 인류의 성격구조에 고착되었을

것이다. 한번 고착이 되기 시작하면 구성원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회제도의 자기복제적인 특성상 부성주의는 기후나 식량 조달 상황의 변화에 무관하게 존속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부성주의는 사막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다습하고 풍요로운 지역에서도 인접 사막지대에서 침입한 호전적인 유목민들을 통해 확산되었으리라.

위의 고찰들을 통해 이 가설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지리적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험난한 사막지대와 극단적 부성주의 문화가 번성한 지역에 지리적인 연관, 즉 지도상의 위치의 유사성이 존재한다면 고대 인류 문화에서 최초의 트라우마와 억압을 발생시킨 기제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갑옷입기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최초의 트라우마 기제를 필요로 했던 라이히의 성경제학 이론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견된 지리적 연관성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 인류학과 기후학의 지리학적 양상

나의 초기 논문에서는 400여개의 생존수준 원주민 문화에서의 행동양식과 사회제도를 분석하여 대부분의 극단적 부성주의 부족들이 사막지대에서 살고 있었음을 밝혔다. 이후에는 1,170개의 문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막기후와 부성주의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 상관관계가 모든 건조/극건조 기후에 통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의 이동으로 식량과 식수를 구할 수 있는 건조지대는 예외였다. 반면에 다습한 지대일지라도 거대한 극건조지대에 인접한 경우에는 성격적으로 부성주의적 면모를 보였으며 이는 부족의 이주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당시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머독(Murdock)의 <민속학지도(Ethnographic Atlas)>였는데 실상 이 책에는 지도 따위는 실려 있지 않았고 다만 원주민에 대한 서술적인 도표 자료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북/남아메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의 자료는 유럽인들의 이주가 있기 이전의 원주민에 대한 것이었다. 머독의 자료는 1840년부터 1960년까지 발간된 수백 가지에 이르는 공신력 있는 출처에서 수집되고, 다른 학자들에 의한 구조적 평가를 거친 것으로, 비교문화학 이론 검증에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1,170개의 문화들은 모성주의-부성주의 도식을 반영한 15개의 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컴퓨터를 통해 개별적인 평가를 거쳤다. 높은 비율의 부성주의 특징을 보이는 문화는 높은 점수를, 낮은 비율의 부성주의 특징(즉, 높은 수준의 모성주의)을 보이는 문화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각각의 문화가 위치한 지역의 위도와 경도를 뽑아 위도 5° × 경도 5°의 블록마다 해당 블록의 부성주의 비율의 평균을 산출하여 기입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아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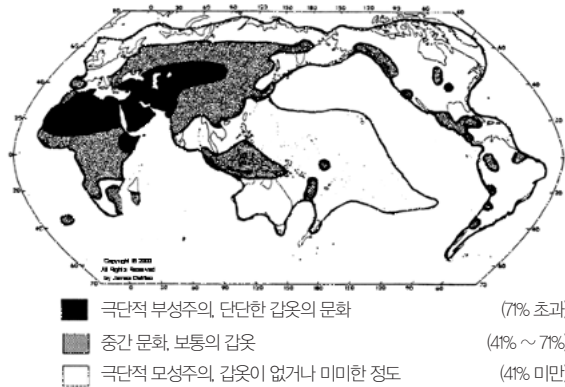


그림 6. 세계행태지도 : 머독의 <민속학지도>에 수록된 1840~1960년경의 원주민 자료를 통해 재구축, 역사적 해석은 최소화함.



세계행태지도(Wolrd Behavior Map)가 완성되었다.

이 세계행태지도에서 보이는 패턴은 15개의 변수에 의해 개별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그 외에도 나의 초기 학위논문에서 수록된 관련 변수(성기의 손상, 영아의 두개골 변형, 강보 싸기)들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의 내용도 반영하고 있다. 세계행태지도는 부성주의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무작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 또한 아님을 보여준다. 구대륙의 문화는 분명히 오세아니아와 신대륙의 문화보다 더 부성주의적이다. 또한 가장 극단적인 부성주의를 보여주는 지역은 북아프리카와 중근동, 중앙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구역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지역이 지구상에서 가장 험악하고 광활한 사막지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사막지대와 관련된 환경 요소를 반영한 지도는 세계행태지도에서 극단적인 부성주의의 분포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그 예로, 아래의 <그림7>은 부디코-레토 건조율(Budyko-Lettau dryness ratio)을 적용한 가장 건조한 사막지대의 위치를 보여준다. 이 건조율 지표는 한 지역의 강수량에 대비한 증발 에너지를 대조시킨 것으로, 일반적인 기후 분류 체계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막 기후가 유사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면, 이 체계는 건조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표이다. 최대 강수량의 변화율이나 최고 월평균 기온, 불모 지역, 최저 수용능력 지역, 사막토질 지역, 미거주 지역 등의 각종 스트레스 환경에 관한 지도 또한 이 극단적인 사막-부성주의 지대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나는 극단적인 기후와 문화를 갖고 있는 이 광활한 지역에 사하라시아라는 이름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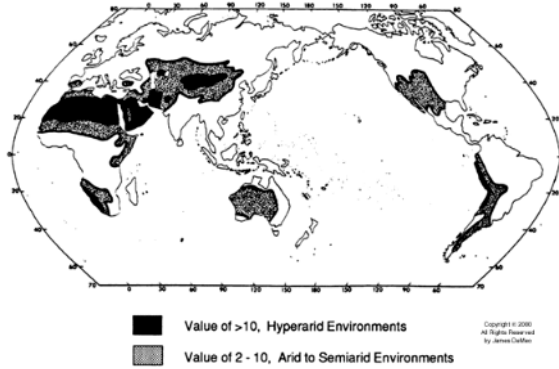


그림 7. 부디코-레토 건조율 : 지구상의 각기 다른 건조지역의 건조성을 상대적인 값으로 보여주는 지표. 지표의 값은 강수량과 증발 에너지의 비율을 뜻한다. 즉, 건조율이 2라면 태양열의 증발 에너지가 강수로 인한 습기의 2배라는 뜻, 값이 100이라면 증발 에너지는 강수량의 10배가 된다.

## 고고학과 역사의 지리학적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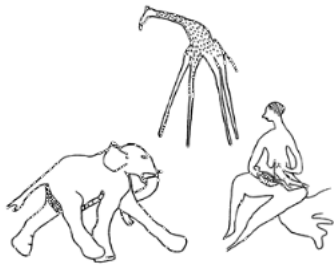
세계행태지도에서 높은 구조성을 보이며 분포된 것을 볼 때, 부성주의는 고대의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사하라시아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이후 인근의 다습한 지역으로 이주를 통하여 전파되었음을 시사한다. 고대의 행동양식, 이주, 기후를 고려하여 이 가설을 검증하려면, 고대의 기후 여건, 부족의 이주, 유아와 여성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사회적 요소, 그리고 남성우위, 전제주의, 가학적 폭력, 호전성의 경향에 대한 자료를 종합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했다. 특정 시기와 지역에 대한 1만개 이상의 노트카드로 이루어진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이를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각각의 카드에는 특정 시기와 지역을 특징짓는 유물이나 생태학적 요건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다. 100여개 이상의 권위 있는 출처를 통해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그 덕택에 비슷한 시기에 고대의 광대한 지역 내 각 부분의 특징을 확인하고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를 통해 부족의 집단이주와 정책의 패턴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생태적, 문화적 전이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의 관심은 사하라시아와 그에 인접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지역에 있었지만 오세아니아와 신대륙에 대한 상당량의 데이터 또한 수집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찰되는 패턴을 통해, 나는 사하라시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습한 기후에서 건조한 사막형 기후로의 중대한 생태적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와 같은 시점에 부성주의가 최초로 발현했음을 입증하였다. 다수의 고고학적, 고기후학(paleoclimatic) 연구가 지금은 거대한 사막지대인 사하라시아 지역이 기원전 4,000~3,000년경에는 사바나 목 지였음을 보여준다. 코끼리, 기린, 코뿔소, 가젤 등은 고지대의 목초지에 살았으며 하마, 악어, 물고기, 그리고 달팽이와 연체동물들은 냇가나 강가, 호숫가에서 번성했었다. 그랬던 북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은 현재 대부분이 극건조지대이며 심지어 일부 지역은 불모의 땅이다. 지금은 말라버린 사하라시아의 분지는 당시 수심에서 수백 미터의 수심을 자랑했으며 협곡과 와디(wadi)에는 끊임없이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사하라시아에서 풍요의 시대를 누리던 인류는 어떠했을까? 이에 대한 증거는 뚜렷하다: 당시의 인류는 평화로웠고 몸과 마음에 갑옷 따위는 두르지 않았으며 성격적으로 모성주의적이었다. 또한 나는 기원전 4,000년 이전의 지구상에서 현저한 부성주의의 존재를 보여주는 그 어떠한 뚜렷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역적으로 고립된 극소수의 예만이 고고학 문헌에 등장하며 이에 대한 나의 견해는 <사하라시아에 대한

보론)의 최근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인류 사회 상태는 모성주의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존재한다. 이러한 추론은 이 시기의 특정 유물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뒷받침된다. 성별과는 무관하게 세심히 이루어진 장례와 상대적으로 균등한 재산(grave wealth), 성적으로 현실적인 여성 조각상, 자연주의적이고 세심하게 만들어진 벽화와 도기들이 그러한 예이다. 당시의 예술작품은 여성과 어린이, 음악과 춤, 동물, 사냥을 강조하고 있었다. 수세기 이후 이 평화로운 모성주의적 인류는 기술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거대하나 요새화되지 않은 농경사회 그리고/또는 무역사회를 형성했으며 크레타, 인더스 계곡,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그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초기 사회가 모성주의적이었다는 다른 증거로는, 사하라시아 지역이 사막화된 이후의 지층에서는 쉽게 발견되는 혼돈, 전쟁, 사디즘, 잔혹성에 대한 고고학적 흔적이 없다는 점이 있다. 사막화 이후의 지층에서는 전쟁용 무기, 파괴된 거주지, 거대요새, 신전, 지배자를 위한 무덤, 유아 두개골 변형, 늙은 남성의 무덤에서 벌어진 제의적 여성 살해, 유아 희생제의, 절단된 신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매장지, 카스트 계급, 노예제, 극도의 계급사회, 일부다처제와 축첩의 증거들이 건축물이나 무덤의 부장물을 비롯한 각종 장례풍습을 통해 발견되었다. 예술품의 소재와 양식 또한 건조기에 들어서면서 변화했다. 여성과 어린이, 일상에 대한 묘사는 사라지고 말에 탄 전사, 전차, 전투, 낙타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자연주의적인 여성 조각상을 비롯한 예술품들은 일제히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 되고 심지어 흉포해지면서 예전의 부드럽고 온화하며 에로틱한 성질을 잃게 되었다. 일부는 완전히 소멸되어 남성신이나 신왕(god-king)의 조각상으로 대체되었다. 건축 양식 같은 예술품의 질 또한 이 시기부터 퇴락하며 곧



Middle Pleistocene Hunter-Gathering Period, c.700,000 BCE



Middle Neolithic Pastoralist Period, c.5000 BCE



Dry Bronze Age, Wastland, Herds, Chariot, Camel Period, c.2000-500 BCE

그림 8 북아프리카 암각화

으로써, 극심한 사막화와 기근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태초의 모성주의적 사회구조를 무너뜨리고 부성주의적인 행동양식과 사회제도를 싹트게 했으며 고향을 등지고 대규모로 이주를 시도하면서 겪은 고난과 희소해진 물을 얻기 위한 경쟁을 통해 부성주의는 점차로 강화되었다는 나의 이론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기념비적(monumental), 전투적, 남근숭배적인 모티프가 뒤따랐다. 고고학, 역사학 문헌에 등장하는 이러한 문화적 변천이나 환경의 변화가 문화에 미친 강력한 영향을 언급한 경우는 이전에도 많았다. 하지만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제시한 접근은 나의 시도가 최초이다.

사회 혼란과 부성주의의 최초 증거가 발견되는 지역은 사막화가 최초로 시작된 사하라시아, 다시 말해 아라비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이다. 일부 특별한 예외로, 아나톨리아(Anatolia)와 레반트(Levant) 지방에서 발견된 기원전 5,000년경의 극히 제한적인 부성주의의 흔적이 있다. 이러한 예외 또한 해당 지역이 건조화 되면서 이주를 시작하고 유목생활로 전환한 흔적과 함께 발견

## 사하라시아 지역에서의 부성주의의 기원

기원전 4,000~3,500년 이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북아프리카의 강변을 따라 형성되었던 평화로운 모성주의적 정착사회가 무 지면서 급진적인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모든 사에서 건조도의 증가와 거주지역의 이탈이 안정적인 수원(오아시스나 타 지역의 강가)을 향한 이주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는 기후가 불안정해지고 건조해지면서 호수의 수면 높이와 강변의 형태가 변화를 겪었고 그리하여 큰 호숫가 등지에서 관개 농업을 하던 정착촌에서의 이탈이 심화되었다.

점점 건조해져 가는 아라비아와 중앙아시아를 떠난 이주민들은 레반트, 아나톨리아, 이란의 습한 고지대를 비롯하여 나일강과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촌락들을 침략하였고 그와 함께 새로운 전제국가가 태어났다. 내가 연구한 거의 모든 침략 사에서 그 후 제의적인 과부 살해(예를 들어 큰아들에 의해 행해지는 어머니 살해가 있다), 두개골 변형, 말과 낙타에 대한 강조, 군대 확장의 증거와 무덤, 사원, 요새화(fortification) 건축이 발생하였다. 새로운 전제국가가 그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일부는 말라가는 스텝(steppe)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부족들을 정복하였고 다른 일부는 영역 확장을 위해 사하라시아 인근의 다습한 지역들을 침략하였다. 습지대에 거주하는 부족들을 지배하는 데에 실패한 경우, 이들에 대한 방어적 태도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요새, 발달된 무기 기술, 보다 강화된 부성주의가 나타났다. 그 외의 사하라시아 지역에 존속했던 전제국가들은 사막화가 심화되면서 결국 역사에서도 사라진다.

## 사하라시아 변경으로의 부성주의의 확산

사하라시아 중심부에서 건조화가 시작되면서 부성주의가 발흥한 이후, 사하라시아의 보다 습한 변경에서도 부성주의가 등장하였다. 사막화가 사하라시아를 뒤덮으면서 갑옷을 두른 부성주의적 반응 또한 사하라시아 주민들을 휘어잡았고, 건조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을 통해 이러한 주민들이 다습한 변경지대의 평화로운 부족들과 접촉하는 일도 잦아졌다. 사하라시아로부터의 이주는 점점 침략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변경지대에서 부성주의의 발생은 사막화와 기근의 트라우마에 의한 것이 아닌, 평화로웠던 원주민들의 학살과 그 빈자리를 부성주의적 침략자들이 차지하거나 원주민들에게 새로운 부성주의 사회제도를 강제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예로 유럽은 기원전 4,000년 이후 쿠르간족(Kurgans), 스키타이족(Scythians), 사르마티아족(Sarmatians), 훈족, 아랍족, 몽골족, 투르크족에 의해 차례로 침략 당했고 이로 인한 전쟁, 지배, 약탈은 유럽을 점차 부성주의적으로 변모시켰다. 서부 유럽, 특히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지방은 사하라시아 지역에 크게 영향을 받은 지중해와 동부 유럽에 비해 부성주의의 발달이 시기적으로도 않고 그 강도도 약했다.

구대륙의 다른 한편에 위치한 다습한 중국 지역에서도 기원전 2,000년경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발흥한 최초의 극단적 부성주의 국가인 상(商)과 주(周)의 침략 이전까지는 평화로운 모성주의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훈족, 몽골족 등의 침략은 다습한 중국 지역에서의 부성주의를 한층 강화시켰을 것이다. 중국과 한반도에서 유리되어 있는 덕택에 일본의 문화는 보다 오래 모성주의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그것도 기원전 1,000년경 야요이를 비롯한 대륙에서의 침략으로 무 졌다. 남부아시아에서는 인더스강 유역에서 번성했던 모성주의적 무역촌락이 기원전 1,800년경 건조화의 압박과 중앙아시아 부족들의 침략으로 붕괴했다. 그리하여 부성주의는 인도에도 전파되었으며 이후 수세기 동안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에서 온 훈족, 아랍족, 몽골족들의 침략을 통해 더욱 심화된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모성주의가 지배적이었다가 중국, 인도, 아프리카, 이슬람 지역의 부성주의적 중앙집권국가들의 침략을 거쳐 부성주의로 변하게 된다.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흔적은, 북아프리카가 건조화되던 시점에 북 에서의 이민자들이 당도하면서 이 지역에서 최 로 부성주의가 등장하고 이후 파라오 왕조 시대의 이집트, 카르타고, 그리스, 로마, 비잔틴, 반투, 아랍, 투르크 그리고 식민 유럽시대의 영향이 아프리카에서의 부성주의를 심화시켰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민→침략→정착의 지리학적 패턴은 매우 인상적이다. 기원전 4,000년경 이후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두 개의 부성주의 중심부를 볼 수 있다. 하나는 아라비아에, 다른 하나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셈족과 인도아리아족의 고향이기도 하다(〈그림9〉 참조). 이 지역은 또한 사하라시아에 최 로 말라붙기 시작한 지역이다. 이 사막 유목민 전사들의 침략의 다른 역사적 측면은 〈그림10-1〉과 〈그림10-2〉에서 볼 수 있다. 각기 다른 시기의 아랍과 투르크 점령 지역을 보여주는 이 지도에서는 아라비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온 최후의 침략들이 점령한 지역이 사하라시아 사막지대 전체와 그곳에서부터 보다 습한 변경지역으로 뻗어나가는 형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기원전 4000년경을 기점으로 한 구대륙에서의 갑옷 입은 인류 문화(부성주의 문화 복합체) 확산의 일반적 경로

1. 아라비아 중심부 2. 중앙아시아 중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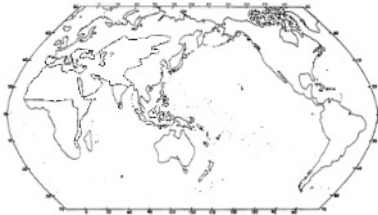


그림 10-1. 서기 632년 이후 아랍 군대에 점령되었거나 영향 받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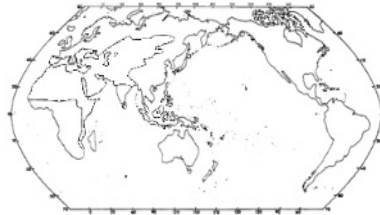


그림 10-2. 서기 540년 이후 투르크 군대에 점령되었거나 영향 받은 지역

이러한 지리학적 자료는 왜 모성주의가 사하라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잘 보존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잉글랜드, 크레타, 스칸디나비아, 북극아시아, 남아프리카, 남부 인도, 아시아 열도를 비롯한 사하라시아 외곽 지역(특히 섬들)에서는 이후 부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흔적을 보여주며 기존의 모성주의적 사회제도와 섞이면서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인다. 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사용한 다양한 출처를 통해, 구대륙에서의 부성주의 확산 양상을 보여주는 <그림9>가

만들어졌다. 화살표의 방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나 주민의 이주와 확산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부합한다. 고고학과 역사학 문헌에서 발췌한 이 지리학적 패턴이 보다 최근의 인류학 자료로 만들어진 <그림6>의 세계행태지도의 패턴과도 유사하다는 사실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오세아니아와 신대륙으로의 부성주의의 확산

부성주의적 부족들의 이주에 대한 관찰의 범위를 구대륙에서 오세아니아, 심지어는 신대륙까지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11>은 사하라시아 외에는 부성주의의 발원지가 없다는 가정 아래에 구성한 확산 경로이다. 이 마지막 지도는 세계행태지도를 비롯하여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지도와 나의 논문에 언급된 출처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확산 경로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행태지도에서 볼 수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부성주의가 주로 해안가에서 살았거나 혹은 그 조상이 해안가에서 최초의 부성주의 군락을 형성한 부족에게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게다가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초기 부성주의적 부족의 문화는 특히 물질문화, 예술품, 언어 측면에서 콜럼버스 이전에 대양을 향해하던 구대륙 부성주의 국가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제한적인 수준의 부성주의가 사막화-기근-이민 메커니즘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사막이나 북아메리카의 그레이트 베이슨(Great Basin), 또는 아타카마 사막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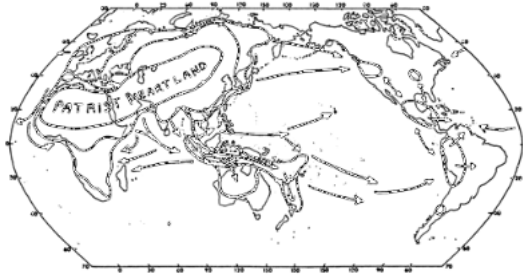



그림 11. 전 세계에 걸친 부성주의 확산 패턴 (추정, 콜럼버스 이전 시대)

## 결론

갑옷 입은 부성주의의 기원을 사하라시아에서 찾는 나의 이론은 고고학, 역사학, 인류학 자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리학적인 연구를 통해 만들어졌다. 다양한 자료들을 지도로 도식화하는 작업은 부성주의의 근원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최초의 가설이 얼마나 예측력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근본적인 모자간, 남녀간 결속의 충동을 방해하고 강력한 남성우위, 위계질서, 파괴적 공격성을 갖고 있는 특정 사회제도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이 연구의 최초 가설을 구성하는 인간 행태에 대한 성경제학적 이론, 모성주의-부성주의 도식, 사막화와 부성주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인간의 행태는 선천적으로 사회적, 개인적 삶에서 쾌락지향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자라나는 아이에게 생존과 건강 측면에서 분명한 이점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신생아와 어머니 사이의 결속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그 아이가 다양한 성장과정을

거칠 때 양육을 지원하고, 젊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즐거운 자극과 사랑의 결속을 응원하고 보호하는 모성주의적 행태와 사회제도로 이어진다. 이러한 쾌락지향적인 생물학적 충동은 사회적으로 협동적인 경향을 띠고 있으며 생명을 보호하고 고양시키는 사회제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친유아적, 친여성적, 성 긍정적, 쾌락지향적인 충동과 행동양식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사하라시아 사막지대 바깥에서 발견되곤 했다. 그리고 이는 구대륙의 사막화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 있었던 사회제도이자 행동양식이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논거한다: 사하라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사막화가 시작된 기원전 4,000년경의 트라우마적인 기근 상태에 대한 수축적인 감정적, 문화적 반작용의 결과로 아이를 학대하고 여성을 종속시키며 성억압적이고 파괴적인 공격성을 가진 남성주의가 나타났으며 이 반작용은 뒤이어 그 트라우마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변화된 사회제도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로 급격히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끝) 

- 이 글은 'The Origins and Diffusion of Patrim in Saharasia, c.4000 BCE: Evidence for a Worldwide, Climate-Linked Geographical Pattern in Human Behavior'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래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제임스 드메오**(James DeMeo, Ph.D) | 제임스 드메오 박사는 1978년 설립된 오르곤 생물물리연구소 이사이다. 캔사스 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 빌헬름 라이히의 사회학적 발견, 생물물리학적 발견물을 연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또 플로리다 아틀란틱 대학에서 환경학과 화학을 연구했으며, 일리노이 주립대학과 마이애미 대학에서 지리학을 가르쳤다.

[www.saharasia.org](http://www.saharasia.org)

역자 | **김누리** | [cexciar28@gmail.com](mailto:cexciar28@gmail.com)